

탐 방

국내 최초로

초생추(CC) 상한가격을 공표한

천호부화장을 찾아서

(양계업자 보호를 위한 초생추가격 상승에 제동구실 될듯)

(취재부)

우리는 흔히 이제는 양계 선진국임을 자처하면서도 그야말로 병아리 가격말만 나오면 너나 할것없이 한탄의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60년대에 병아리 외상판매 작전은 80년대를 바라보는 오늘도 산란계의 경우는 병아리를 길러서 산란한 후 천천히 대금을 받겠다는 부화장도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것이 사실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부로일러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1마리당 350원까지도 하였고 이것도 특별히 부탁을하고 가운데 사람을 넣어 섭외 활동을 하여 겨우 겨우 구입하곤 한다는 말도 들렸었다.

몇달 지난 금년 봄에는 350원은 어디가고 70~80원에도 현금판매가 어렵다고 하더니 요즈음은 1수당 50원 소리까지 나오고있고 그나마도 팔리지 않아 팔아서 수익이 있으면 달라느니 또는 육계값이 600원하면 병아리값을 달라는 조건으로도 판매가 된다고 한다.

심한 경우는 이런조건으로도 떠말을 사람이 없어 주인이 없으면 부로일러 농장에 찾아가서 말기고 (버리고)오는 경우도 있

다고 한다.

초생추 시장은 정말 정화되고 안정될수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바라면서도 현여건 아래에서는 불가능한것으로 생각되어 감히 아무도 실행에 옮기려 하지도 못한것이 사실이다.

생물이기 때문에 조금만 남아도 값은 폭락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값은 폭등하는것이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모든 농산물이 다 그렇지만 병아리의 경우 더욱 그도가 지나치리만큼 심하였다.

이렇기 때문에 병아리 품질은 나빠지고 불량추시비는 끊이지 않았고 법은 있어도 잘 지켜 지지않은 주요원인이 되었었다.

이러한 우리업체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아직은 그 결과의 성공여부를 짐치기는 어려우나 시도하여 보는것 자체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간 매월 고객에 발행되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천호편지 이달호 내용중 좀 특색있고 관심을 끄는 내용이 게재되었다.

1980년도의 천호부화장 cc판매상한가격의 공포이다.



〈천호부회장 이계조 사장〉

기자는 이번 천호부회장의 최고가 공약이 병아리 판매 질서를 재정립하고 부화업체에 신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아 이계조 사장을 직접 찾아 보았다.

「이번 천호편지를 보니 좀 특이한 것이 있더군요.

80년도에 천호부회장에서는 이 가격 이상으로는 절대 병아리 값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인데 그 내용과 이런 발표를 (공약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병아리 가격의 진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지금까지의 병아리 거래질서 정립을 위해 할수 있는 것 부터 시작하여 일반 양계업자를 위해서도 노력하고자 하는 뜻에서 입니다.

지난번 부로일러 초생추가 부족될때 상당기간을 180원 선으로 유지하여 보았습니다. 다른 부회장에서는 200원 또는 그이상 220원 까지도 받으면서도 천호 부회장 때문에 더이상 가격을 올릴수 없다고 천호도 함께 값을 올리라는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때 느낀것이 병아리 가격을 부로일러의 경우 350원까지도 받다남으면 50원 또는 그 이하로 파는 이러한 판매 방법은 양계업자에 큰 피해를 주고 부회장에도

결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천호부회장만이라도 최고가격을 고객에게 약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고 가격만 있고 하한가격이 없는데 최고가격은 어떻게 정해졌고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고 가격은 생산비에 최소한의 기업 이윤만을 더한 것이며 앞으로 년중 초생추가 판매될경우 최고가격은대폭 내려서 조정될 수 있을것입니다.

하한 가격은 시세대로 싸게 팔면 양계농가가 이익을 보기때문에 값이 쌀수록 양계장 입장에서 보면 유리합니다.

우리 부회장의 1년분 초생추 최고가격만을 공약하므로써 부화업이 큰 수익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서로 알게되면 우선 성공입니다.

오직 초생추 품질향상에 주력하여 최근 선진국 기업이 그렇듯이 부회장의 이익을 고객인 양계장에 환원 한다는 뜻도 됩니다.

「협력 회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이번 최고가격 고시는 협력 회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아서는 얼마안가서 초생추부족 현상이 올것으로 예측되는데 협력회 회원에게까지 출혈을 강요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협력회원과 관계없이 이 가격을 고수할것이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시장기능에 의한 초생추 유통질서가 서서히 정화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물건이 남을때와 부족될때의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시는지요 」

초생추가 과잉될때에는 입란조절로 유통

신뢰하며 공존하는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73년말부터 75년초 사이에도우리업체는 지금과 같은 혹심한 불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75년이래 우리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고,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제란과 닭고기의 수요는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한편, 75년에 종계 수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병아리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화업체는 병아리가 모자라자, 터무니 없는 값에 병아리를 팔았으며, 병아리 품질은 믿을수가 없고 되었고, 그나마 양계업자는 병아리 사는데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부화장은 횡포를 부렸고, 상도익은 아예 땅바닥에 팽개쳐 버렸으며, 그 결과로 급기야는 양계업자로부터 인간적인 대우는 커녕 불신과 증오를 받는 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진심으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계업자는 그런대로 수지가 맞으므로 생산시설을 서둘러 확대했으며, 기존종계업, 부화업자는 물론 신규업자까지 합세하여 종계확보와 부화장 증설에 혈안이 되자, 78년 하반기부터 종계수입이 개방되면서, 과거처럼 수지가 맞을 것으로 너도나도 자기 능력을 다해 종계를 대량 확보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생산과잉을 초래

했고 그 결과는 상당수의 부화장이 도산하는 지경까지 유도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업체는 74년과 같은 불황을 겪고 있으며, 문을 닫는 부화장이 절반이상이고, 종계는 조기 도태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의 호황시에 벌었던 이익금을 다 털어놓고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것이 지금의 우리 업체의 현황입니다.

국민에게 값싸고 영양이 풍부한 제란과 닭고기를 생산 공급하는데 꼭 필요한 병아리를 부화하는 이 업이 하루 아침에 흥했다가, 저녁에 망하는 하루살이 업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양계업체도 싫던 종던 국제 경쟁 시대에 들어갔으며, 다른 동물성 식품과도 소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 했습니다.

양계업자와 부화업자가 상호 신뢰하고, 공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계업과 부화업의 안정된 발전을 도우기 위해서, 양심적인 가격을 고지하고 아무리 부족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양심을 걸고 약속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 업체가 공정거래 질서를 회복하고, 안정된 발전을 기할수 있도록 저희 부화장은 표와 같이 실용계 초생추를 판매코저 하오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 호 부 화 장

대표 이 계 조 드립

1980년 실용계 초생추 최고 가격표

월별	산란계 (수당)		육계 (수당)
	하이섹스백색	하이섹스갈색	하이브로
1	250원	260원	최고가격
2	280 "	290 "	200원이하
3	300 "	310 "	
4	300 "	310 "	
5	260 "	270 "	
6	250 "	260 "	
7	270 "	280 "	
8	300 "	310 "	
9	300 "	310 "	
10	300 "	310 "	
11	270 "	280 "	
12	270 "	280 "	



질서를 유지할 것이며 가격은 시중 시세에 따르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족될 때에는 여하한 경우도 최고가격을 고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업부직원의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병아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뒷거래나 어떤 형태로든지 가격을 인상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할 것입니다.

「중계에 대한것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요」

중계도 곧 최고가격을 공포할것입니다.

국제시세가 육용계 P·S의 경우 FOB 로 1 \$20¢ ~ 1 \$30¢ (600w—700w) 밖에 하지 않는데 국내에서 1500~1600씩 거래 되는것은 큰 모순입니다.

이런 모순때문에 초생추 품질이 나빠지고 원가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화업자가 의욕을 잃고있어 이것이 초생추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될것이 뻔

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P·S 가격도 곧 정해서 발표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여러가지 감사합니다. 이번일로 우리 부화업계가 더욱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이번가격결정은 다만 아무리 병아리가 부족해도 이 이상가격은 받지 않겠다는 약속일본 이가격을 고수하는것이 아님을 이해하기 바랍니다.」